

2011년도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일 자 : 2011. 3. 3(목)
- 장 소 : 공군회관
- 참석자 : 함태섭 협의회회장 외 100여명
- 안 건
 - 201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협회장 감사패 : 안희창, 박동균
- 협의회회장 표창 : 윤덕현, 박태성, 문상덕, 배재희, 최창석, 김매영, 김재갑, 김진성, 지준관, 임평선, 김상현



- 일 자 : 2011. 3. 23(수)
- 장 소 : 공군회관
- 참석자 : 김영규 협의회회장 외 50여명
- 안 건
 - 201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협회장 표창 : 송희수, 구자호, 홍성우, 서종봉
- 협의회회장 표창 : 한상열, 김명환, 임정빈



- 일 자 : 2011. 3. 26(토)
- 장 소 : 협회 대강당
- 참석자 : 이효원 협의회회장 외 100여명
- 안 건
 - 201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협회장 표창 : 정우일, 진길성



전력기술관리법 운영관련, 지자체 공무원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감리업의 등록업무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감리업자 선정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관련, 지자체 공무원 세미나」가 지난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간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담당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가 주최하고 협회(회장 최광주)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기설계업·감리업의 등록업무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 선정제도와 관련된 전력기술관리법령을 설명하고 민원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해당업무의 이해를 돕고 업무와 관련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지식경제부 임찬왕 전력산업과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기설계업·감리업 등록 및 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PQ평가 제도는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며, 일본원전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성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전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지를 많은 사람이 느끼고 공감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안전」과 그 동안의 그동안의 「전기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어 정부에서도 설계·감리업 등록제도의 질적 향상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PQ기준 등 관련 제도를 품질확보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하였다.

본 세미나를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최광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매년 세미나가 개최될수록 본 세미나의 필요성과 중요성으로 인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본 세미나가 관련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상호간에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본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협회 상호간에 정보교류의 끈이 만들어져 더욱 원활한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개최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 세미나를 통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이 더욱 발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부일 부지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감리자 선정업무를 하는 지자체 담당자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히 쓸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력산업 발전과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임찬왕 과장이 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전기설계·감리업 등록의 효율적 운영 및 공동주택의 전기감리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대전광역시청 도시과 신현상, 화성시청 주택과 이기열, 고성군청 주택도시과 박대상 이상 3명이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경상남도 회계과 박길용 남양주시청 주택과 안진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관리처 박영만 이상 3명이 전기감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회장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이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희범 前장관님께서 참석하시어 「국가경쟁력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열강을 펼쳐 지자체 담당자들로 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밖에 전력기술관리법 해설 및 개정방향과, 전기설계·감리업 등록 절차 및 민원사항, 공동주택의 전기감리용역 PQ평가방법 등을 지경부 담당공무원과 협회관계자, 지자체 담당자등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를 통하여 협회는 설계·감리업 등록에 관한 회원의 업무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과 공동주택 감리업자 선정평가방법에 대한 지자체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불시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식경제부와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산업사찰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협회장 감사패



협회장 감사장

강의목록

내용	강사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추진정책	지식경제부 임찬왕 과장
전력기술관리법령 해설 및 개정방향 설명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남기범 실장
국가경쟁력 현황과 과제	STX에너지·중공업 이희범 회장
공동주택감리관련 PQ기준 해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종혁 과장
신재생발전설비 동향 및 기술적 검토사항	한빛디엔에스(주) 이현화 대표이사
공동주택의 전기감리용역 PQ평가방법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박경인
전기설계·감리업 등록절차 및 민원사항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전문구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소속	성명
대전광역시 도시국 도시과	신현상
경기도 화성시 건설도시국 주택과	이기열
경상남도 고성군 주택도시과	박대성

협회장 감사장

소속	성명
경상남도 회계과	박길용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안진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관리처	박영만

협회장 감사패

소속	성명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과장	임찬왕

세미나 후원업체 명단

후원	감리업체명	대표자
☆☆	한국전기감리협의회	-
	(주)건창기술단	김영규
	(주)대경기술단	엄정일
	(주)태양이엔지	배중배
	(주)한국나이스기술단	김상동, 송석중
	(주)지회기술단	신윤용
☆	(주)신담엔지니어링	김철규
	(주)광명토탈엔지니어링	김재곤
	(주)진광건설엔지니어링	강창보
	(주)력기기술단	공학배
	(주)동도이엔씨	이종화
	이플러스이엔씨(주)	유영욱
	화성감리	김대우
	(주)유담엔지니어링	길종일
	유원이엔에프(주)	이광흠
	(주)한국코이엔지니어링	유종희
	(주)정엔지니어링	박정철
	(주)에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이윤상
	(주)라인엔지니어링	이동진
	(주)세종기술단	조옥제
	경기엔지니어링(주)	이원섭

* ☆☆: 200만원, ☆: 100만원 후원

대행회원님께 드리는 말씀...

전국의 대행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는 우리 회원모두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회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룩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행회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전기안전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협회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대협협의회에서는 대협사업자 및 대행회원의 권익문제와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을 우리협회에 여러차례 건의해 왔고 그 건의사항 중 일부는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거나 상주 회원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이를 개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협회와 대협협의회간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대협협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지식경제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만, 기존단체와의 업무중복, 유사단체 난립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우려 및 정부의 유사단체 통·폐합 추진정책에 역행된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대협협의회와의 상생방안을 찾고자 양측 대표단이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해 왔으며, 특히 협회에서는 대협협의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법제화, 대협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대협가중치의 회사단위 통합관리, 대협협의회 의장의 협회이사 선임, 기타 행정지원 및 행사비 지원 등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상호협력 제안서(공문)를 대협협의회에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대협협의회는 2010년 4월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한 결과 2011년 3월 15일 지식경제부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행회원 여러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협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기각을 한 만큼, 우리는 이제 지난 일들을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간의 신뢰와 화합으로 같은 길을 걸어갑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힘을 합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특히 대행수수료 법적근거 마련, 보조원의 등록요건 개선 등 전기안전관리대협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산적된 현안사안들을 신속히 해결 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협회는 앞으로 전기안전관리대협제도의 발전과 대행회원 여러분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각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협회와 상생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행회원 여러분을 한해도 건강하시고 댁내에 화목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30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최영주



Global Electric Power Tech 2011 2011 국제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개최 계획

전시회 개최 계획

▣ 전시회명

- 국 문 : 2011 국제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 영 문 : Global Electric Power Tech 2011

▣ 전시기간 : 2011. 5. 18(수) ~ 5. 20(금)

▣ 전시장소 : COEX A Hall(COEX 1층 舊 태평양홀)

▣ 전시면적 : 10,368㎡

▣ 개최규모 : 25개국 280업체 450부스

▣ 주최기관 : 한국전력기술협회, KOTRA

▣ 후원기관

-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 주요 전시품목

- 스마트그리드 설비 및 시스템
- 발전 및 원자력 플랜트 설비
- 송·변·배전 관련기자재
- 전력전자 / 전기품질 및 네트워크 시스템
- 전기설비 및 관련기자재
-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 계측제어 및 관리시스템
- LED 고효율 기자재

▣ 부대행사

해의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및 공식 환영오찬, World Smart Grid Seminar, 스마트그리드연구회 학술대회,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와 스마트그리드 세미나, 원자력 방사선 세미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등

▣ 전시회 관련 주요 인증 현황

- 2009년, 2010년 지식경제부 국제전시회 인증
- 2009년, 2010년, 2011년 지식경제부 국고지원 유망전시회 선정
- 2010년 서울 유망전시회 선정(2011년도 신청 접수중)
- 2009년, 2010년 경기도 녹색에너지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 2009, 2010년도 지식경제부 국제전시회 인증
- 2009, 2010, 2011년도 국고지원 유망전시회 선정
- 2010년도 서울시 유망전시회 선정(2011년도 신청 접수중)
- 2010, 2011년도 경기도 녹색에너지 자원대상 전시회 선정

무료초대권이 필요하세요!!
 지금 휴대전화로 신청하세요!
 ☎ 070-777-3545 문자초대권
 *전시회 현장등록시, 문자를 제시하시면 무료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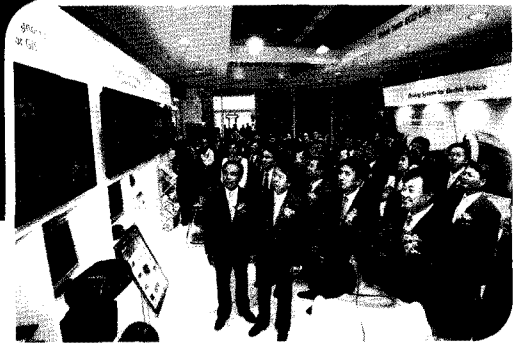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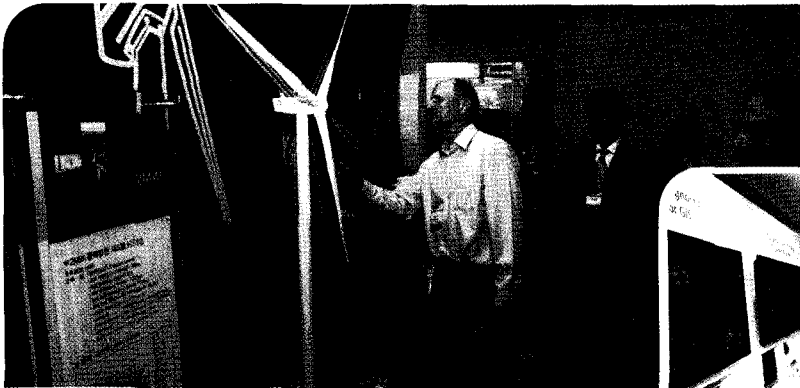
협회와 KOTRA는 스마트그리드, 발전·원자력 플랜트, 중전기 산업을 융합한 “2011 국제 스마트 그리드 및 전기설비전(Global Electric Power Tech 2011, 이하 글로벌 파워텍)”을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COEX A홀(舊 COEX 1층 태평양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 글로벌화 및 수출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전력산업의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진출을 위해 한전, 발전 6사, 스마트그리드협회 등 20여개의 관련 단체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글로벌 파워텍에는 국내·외 25개국, 280여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KOTRA에서는 아시아,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연방(CIS) 등

35개국 120개사의 전력, 스마트그리드, 발전 및 원자력 플랜트 분야 EPC 등 유력 발주처와 수입상을 초청 중에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전 및 발전6사가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0부스(3m×4m, 1부스 기준) 개설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현대중공업, 효성 등 중전기 관련 대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전시 참가업체 지원을 결정하고 참가업체를 모집 중에 있다.

본 전시회는 정부, 협회, KOTRA, 전력업계 공동으로 전력 플랜트 및 기자재 수출 진흥 모델을 구축한 전시회로서, 1,500여개의 회원사와 100만 전기인을 관리하는 우리협회와 전세계 99개의 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을 보유한



KOTRA가 공동 주최하여 국내 및 해외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 범국가적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전시회로 거듭나고 있다.

글로벌 파워텍은 2년 연속 국제전시회 인증(지식경제부), 3년 연속 국고지원 유망전시회에 선정(지식경제부)되는 등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로 거듭 성장하여 내수증심에서 국제전시회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도에 개최된 글로벌 파워텍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63억2,047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8억3,203만원, 고용유발효과가 56명으로 나타났으며, 총 경제효과는 13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시 기간중(3일간) 실적외로만 집계되었으며, 실제 전시개최 후 수출등 실적외로 경제효과를 산정시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규모이다. 실제로 2009년도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에 의한 수출계약액인 1,364백만달러를 신규고용 창출인원 산출시 12,800여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적용환율 : 2010년도 평균 환율(매매기준을 기준)인 1US\$=1156.05원 적용

* Kotra 자료 : 수출 1백만US\$ 9.6명 신규고용 창출

우리 전력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높은 기술력과 우수성을 이미 해외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10년 초 유희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원자재가 상승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외플랜트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39.3% 증가한 6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발전·담수 부문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하여,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359억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산유국의 에너지플랜트 투자 확대와 개도국의 산업설비 확충 등으로 프로젝트 발주 증가와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본격화하여, 스마트그리드 환경에 맞춰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된 새로운 주택용 요금제가 오는 7월부터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보급·확대 기반 구축을 위해 '20년까지 스마트미터 보급을 완료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표준화, 스마트그리드 빌딩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2020년 이후에는 1%미만의 성장으로 내수시장 포화현상이 예상되어 전력산업 수출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파워텍에 참가하는 매출액 1억불 이상의 글로벌 바이어에게는 상담전용 120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1:1 통역지원과 함께 시간대별 수출상담회를 지원하며, 지방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협회 시·도회에서는 대형버스 50여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